

김인철 교수, 제 10대 총장으로 최종 선임



▲ 김인철 교수는 "화합과 신뢰의 자세로 총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합과 신뢰의 자세로 총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소감 밝혀

이번 달 4일 우리학교 동원육영회 재단이 사회 결과 우리학교 제 10대 총장으로 김인철 교수가 선임됐다. 지난 달 22일 교수협의회(이하 교협) 주관으로 치러진 제2차 투표에서 총 유권자 423명 중 388명(91.72%)이 참여한 가운데 김인철 교수는 250표(64.76%)를 득표해 1위에 올랐다. 교협의 총장후보선출 규정에 따라 제2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있어 결선 투표 없이 1위 득표자인 김인철 교수와 2위 득표자인 강덕수 교수를 최종후보자로 재단사회에 추천했다. 이는 1993년 교수직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하기 시작한 이래 결선 투표까지 치르지 않은 최초의 선거다.

김인철 교수는 지난 달 15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도 394표(93.14%) 중 157표(39.94%)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인철 교수는 교협 주관 선거뿐 아니라 '제 10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출 직위위원회'에서 주관한 총장 후보선거에서도 1위로 선출됐다.

김 교수는 '함께 여는 또 다른 외대-고유가치와 융·복합으로 또 다른 외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선거 공약을 내세웠다. 주요 공약은 △글로벌 배움터의 낡은 건물 리모델링을 골자로 한 '캠퍼스 인프라 개선' △연구·강의·행정·인사를 위한 최적의 지원책 마련 △향후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한 '수도

권 외대병원 배속' 등이 있다.

11월 22일 2차 투표에서 김 교수는 "공약에 담았던 사업들과 마음속에 담은 사업들을 4년 임기 내에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실용주의에 입각해 실적에 근거한 인사 결정과 인센티브 지급 및 사업 확장·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용구 교수협의회장은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정책선거였다"며 "선출된 후보가 공약들을 잘 지켜주기 바라며 교협도 감시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2면에 김인철 교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우리학교 본·분교 통합에 따라 캠퍼스간 이중전공제도 운영방안 확정

본·분교 통합에 따른 배움터 간 학사제도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 기존의 복수전공 제도가 폐지, 캠퍼스 간 이중전공이 허용되고 후기 이중전공(가칭)이 신설됐다. 이번에 변경된 사안은 2014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중전공 신청 시 배움터 구분 없이 동등한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복수전공 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후기 이중전공을 신설해 이중전공 진입방식을 2개로 구분했다. 이중전공과 후기 이중전공은 '제한 학과'를 제외한 양 배움터 전 학과에 대해 신청가능하다.

이중전공 신청은 1학년 과정 이수 후 2학년 진급 시 2개 학기 이상이 등록돼 있어야하고, 선발인원은 학과 입학정원의 150% 이내다. 후기 이중전공은 부전공 이수자가 8학기 이수 후

부전공과 동일한 이중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50~150% 이내에서 학과 수용력에 맞게 학과 자율결정으로 이뤄진다. 이중전공 및 후기 이중전공은 1학년 성적으로 선발하나 지원자 수가 선발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과(부)별 플렉스(FLEX)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선별할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양 배움터 이수과목 모두 표기되는데 1개의 학위증에 제1전공과 이중전공 학위명이 명시된다.

그러나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 이수자에 대한 교육부의 인원 통제로 비사범대 학생의 이중전공 신청을 제한한다. LD학부 역시 개설 취지 및 학부 특수성을 고려해 양 배움터 모든 학과 학생의 이중전공 신청을 제

한한다. 다만 경영학 관련학과는 캠퍼스 간 이중전공 신청을 허용한다. 전과운영에 대해서는 배움터 구분 없이 시행하나 선발인원은 해당 학과(부) 입학정원의 5% 이내며, 사범대학 및 LD학부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번 방안은 본·분교 통합시점인 2014년 3월 1일 이후 시행하며,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에게는 기존 학사제도를 적용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변경된 학사제도는 2년간 시행 후 시행 3년차에 제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게 된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학위증)	(졸업증명서)
계 000호 학 위 증 성명 홍길동 1988년 1월 1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자연과학대학 화학과(이학사) 상경대학 경제학전공(경제학사) 201X년 0월 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계 201X-000호 졸업증명서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80101-1XXXXXX 소 속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 중 전 공 경제학 졸업일자 201X년 0월 0일 학 위 이학사 이중전공학위 경제학사 학위등록번호 한국외대 201X학XXXX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X년 0월 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글로벌배움터 화학과 학생이 이중전공으로 서울배움터 경제학을 이수한 경우

(학위증)	(졸업증명서)
계 000호 학 위 증 성명 홍길동 1988년 1월 1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행정학사)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이학사) 201X년 0월 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학위번호 : 한국외대 (학)	계 201X-000호 졸업증명서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80101-1XXXXXX 소 속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이 중 전 공 통계학 졸업일자 201X년 0월 0일 학 위 행정학사 이중전공학위 이학사 학위등록번호 한국외대 201X학XXXX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X년 0월 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 장

▲서울배움터 행정학과 학생이 이중전공으로 글로벌배움터 통계학을 이수한 경우

한파 녹이는 치열한 인문학 토론 ‘총장 배 토론대회’ 성황리에 끝나

제 6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배 토론대회 결승전이 11월 28일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우리학교 철학과, 사학과, 언어언어과학과가 주최하고 토론대회 운영위원회와 예스24가 주관한 이번 토론대회는 처음으로 인문학을 주제로 삼았다.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에세이 제출 및 참가팀 접수를 마쳤고, 10월 27일 발표된 본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선과 결승전을 진행했다. 이번 결승전의 주제는 '언론자유는 규제돼야 하는가? 보장돼야 하는가?'였다.

10월 31일부터 치러진 본선을 거쳐 강민수(동유럽·폴란드 10) 군, 김대영(공과·

컴퓨터 07) 군, 민필기(경상·경영정보 09) 군으로 구성된 '부득탐승'팀과 김봉현(사범·한교 09) 군, 정경수(사범·한교 09) 군, 김영환(영어·영어 09) 군으로 이뤄진 '단언컨대'팀이 이번 대회 결승전에 올랐다.

부득탐승 팀은 '규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근 인터넷 언론의 자국적인 보도 형태 등 현실적인 측면을 예로 들었다. 단언컨대팀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유는 보장하고 방종을 규제해야 한다'며 자유와 방종의 의미를 엄격히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대회의 결승전을 지켜본 김남영(서양어·독일어 10) 양은 "부득탐승팀에서 언론을 법으로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이에 대해 단언컨대팀에서 '법이 규제라면 우리는 규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한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열띤 토론 끝에 우승은 단언컨대팀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채희락 언론대학장은 "단언컨대팀은 자유와 방종이 미리 구분된다는 가정 아래 논지를 전개해 토론을 유리하게 이끌어갔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우승을 차지한 단언컨대팀의 김봉현 군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자는 의미로 참여했다"며 "경기 전 미리 찬성과 반대로 나눠 준비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우정이 상할 뻔 했지만 뜻밖에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우승팀에게는 총장 직인의 상장 및 상금 60만원과 이북(e-book) 단말기, 2등 부득탐승팀에게는 총장 직인의 상장과 상금 30만원이 수여됐다. 최진욱(인문·철학 10)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언젠가 이 대회가 승패를 떠나 토의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기대를 밝혔다.

경기 후 결승전 주제의 참고 도서였던 '왜 언론자유, 자유언론인가?'의 저자 손태규 단국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손 교수는 다년간의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한국 언론의 현실을 예로 들어가며 언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지면안내

2

신임총장을 만나다

3·4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전하는 새 총장 신임 축하

8

우리학교 반병률 교수의 역사 속 인물 이야기

12

스펙만이 다가 아니다 '기적의 자소서' 저자 취업컨설턴트 조민혁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또 다른 외대를 만들어나갈 것”

김인철 제 10대 신임 총장을 만나다

외 총장으로 선임된 소감이 궁금하다.

김 교수님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총장이 된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다. 평소 총장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다. 총장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 보직도 많이 수행했고 관련된 외부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지자들에게 감사하고, 지지해주지 않은 분에게도 우리학교의 진흥을 위해 합심해 노력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다.

외 제 10대 총장으로서 우리학교의 발전 비전을 제시한다면.

김 우리학교는 다른 대학과 달리 어문·인문·지역학 중심 대학이라는 고유가치가 있다.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아 어문과 인문학, 어문과 지역학이라는 양날개를 단 외대라는 비행체에 대한 민국을 실어 세계에 송출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형의 학문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어문·인문·지역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상경·법학·자연과학·공학 등의 학문적 분야와 융복합돼야 한다. 또 우리학교가 경쟁력 있는 종합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학교와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교육병원의 배속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한다. 곧 우리학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외대만의 특성을 가진, 시장의 학문적 수요에 맞춘 종합대학을 만드는 것이 차기 총장으로서의 비전이다. 강한 외대, 긍지의 외대, 공정한 외대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외대’를 만들어나가고 싶다.

외 공약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가장 개선하고 싶었던 우리학교의 문제점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공약은 무엇인가.

김 서울배움터의 경우 현재 부지가 전부라는 사고를 바꾸고 싶었다. 교세를 확장해 교정을 벗어난 타운형 한국외대를 출범시키고 싶다. 학교 내에 지하철역 두 개 정도가 있도록 반경 300m를 우리학교 타운으로 만들 것이다. 반면 글로벌배움터는 학생과 교수에게 ‘떠나고 싶은 캠퍼스’였다. 그런 점이 아쉬워 한 번 오면 너무 즐거워 머무르고 싶은 캠퍼스를 만들고 싶다. 공약의 핵심은 외대의 파이(pie), 곧 질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질량의 지표는 신입생·교수·대학원생의 규모, 재정과 공간이다. 이 지표들이 신입생들의 성적을 좌우하고 곧 대학의 경쟁력이 된다. 신입생 수 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제가 있어 불가능하지만, 대학원생을 정원에 맞춰 뽑고 훌륭한 교수님을 더 많이 초빙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재정을 ‘여유롭고 든든하며 크고 강한 재정’으로 키워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결국 규모를 키우는 수 밖에 없다. 그런 식의 순환을 통해 질량을 키우면서도 품격있고 매력있는 대학으로 바꾸고 싶다.

외 실용주의를 추구한다고 했다. 앞으로 펼칠 실용주의 정책이 우리학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실용주의란 학교의 경영을 사업 중심으로 하고, 사업에 충분한 투자를 해 확실한 성과를 거둬 학교를 업그레이드해 또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실용적 선순환의 리더십이다.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만큼 학생들에게는 등·하교를 쉽게 해 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한 장학금이 필요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좋은 교육을 시켜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이 실용주의다. 교수들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자율적 연구와 본인



▲5일, 본지는 이사회회의 제 10대총장 선임 받은 김인철 교수를 만나 앞으로 총장으로서의 비전과 포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그의 목표는 우리학교 구성원들의 새로운 외대발전에 대한 희망이 될 것이다.

의 전문성을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직원은 학교 행정의 운영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외대의 구성원이라는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대외적인 지위가 다른 대학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싶다. 또 총동문회와는 동문회가 학교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 아래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사회는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학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앞서 말한 것들을 보장해주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실용주의다.

외 대학구조조정이라는 파고를 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학교가 직면한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김 대학구조조정은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에서는 벌써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학교는 어문·인문 중심 대학으로 특성화돼 유리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리한 측면도 있다. 결국은 시장 수요에 조응하는 학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캠퍼스 특성화, 단과대학 특화와 더불어 유사한 학문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 운영을 해 나갈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위원회를 만들고자 한다. 커리큘럼 조정, 정원의 신축적 운영 등 학사제도 개편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만큼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뤄진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12월 15일경 총장업무준비팀을 가동해 여기서 미래위원회에 대한 틀을 짤 계획이다.

또 ‘5+1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외대 5대 성장축을 제시한다. 어문·인문·지역학과 경영·상경·사회과학, 법학, 자연대·공대, 문화예술컨텐츠다. 이 분야의 학문적 진흥을 위해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 배속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구조조정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

외 재원마련방안으로 등록금 2% 인상을 제시했다. 국가장학금 예산 삭감 등 국가의 규제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럼에도 등록금 인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따를 여파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김 학교의 재정은 재단 전입금, 정부의 지원금, 발전기금, 기업의 투자지원금 그리고 등록금 다섯가지로 구성된다. 우리학교는 등록금 의존율이 60%에 상당하는 대학이다. 게다가 서울의 10대 대학에 비하면 평균 60만원 정도 저렴하다. 다른 대학에 비해 등록금의 절대 액수가 낮아야 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결정하고 다른 대학보다 더 인상한만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를 통해 장학금 수혜율이나 학생 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의존율 등 대학 평가의 지표를 모두 개선할 것이고 외부의 재정 지원을 끌어올 것이다. 학교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을 확충하려고 하는 데에 학생들이 동참해 달라, 동참해준 액수만큼 학생에게 돌려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줄 바란다.

외 초청토론회에서 총장 권한의 분권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총장 권한을 나눌 것이며 분권화가 우리학교의 발전에 어떤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나.

김 교무위원들에게 사실상의 정권위임을 할 생각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양 배움터의 부총장 및 해당되는 단과대학, 미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 총장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조율하고 결정을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며, 최종 책임을 지는 역할이다. 물론 교무위원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교무위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위 기관의 업적을 평가하고 기관장의 역할을 평가할 것이다. 업적에 따라 재임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임면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예외적으로 업무의 성격상 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우리학교의 어학과 지역학에 대한 교육연수평가를 확장해나갈 수임사업총괄 본부를 꾸릴 계획이다. 수임사업본부장에게 큰 권한을 쥐 실제 업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외 이번 총장후보선거에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한 만큼 다양한 공약들이 나왔다. 다른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 중 임기 동안 반영하고자 하는 공약이 있다.

김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모두 정리해서 외우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다. 후보들이 생각했던 공약을 체계화해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김민영 교수는 외부 기업의 투자 지원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싶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에 공감한다. 기업에서 선의의 투자 지원을 해주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계획이다. 또한 강덕수 교수가 캠퍼스 간 특화에 대한 공약을 약속했는데 미래위원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해볼 생각이다. 김종렬 교수와 정경원 교수의 거버넌스와 책임행정이라는 공약은 표현이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행·제정의 자율화와 생각이 비슷해 적극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외 제 10대 총장으로서의 포부가 듣고 싶다. 또 학내 구성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박철 총장이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 그 업적의 바톤을 이어받아 우리학교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 가운데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일하겠다. 이사회의 지도편달을 받으며, 교수협의회와 평의회를 학교 업무의 중요한 조력자로 생각할 것이다. 교수협의회 회장과 평의회 회장이 동의한다면 이들을 교무위원회로 초청하겠다. 또한 노동조합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학생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총장이 될 것이다. 국제마라톤을 11차례 완주한 마라토너로서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서서 뛰며 절대 지지 않겠다. 다함께 합심동력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이남주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사장

이남주 이사장 축하

내년(2014)에 외대는 개교 6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60년간 외대는 5개의 외국어로 시작해서 재학생 이만일천명의 대규모 종합 대학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는 내실을 기해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구성원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김인철 교수가 제 10대 총장에 추천되었다. 동원육영회는 교내외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분을 총장으로 선임하게 되어 매우 다행

스럽게 생각한다. 몇 년 후 곧 전개될 대학 입학 정원수와 대학 지원자 수의 역전을 생각하면 대학이 서열화 되는 현실에서 국내 대학 간의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기치로 내 건 김인철 신임 총장의 방향 설정과 역할이 중요하며 법인 이사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사회는 김인철 교수의 총장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대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길 간절히 바란다.



박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박철 총장 축하

신임 총장께,
우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신 김인철 당선자께 축하를 드립니다. 외대 발전을 위한 해안이 담긴 여러 공약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동감하시고 지지를 보내신 결과입니다. 이제 내년 3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하시는데 밝은 앞날이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제가 2006년 3월 막중한 책무와 외대 발전의 임무를 갖고 총장직을 맡은 지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직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저는 오로지 우리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대 명문사학으로의 재진입과 ‘외대가 외대다워야 한다’는 글로벌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학교는 2009년 이후 5년째 국내 글로벌 분야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최근 국내 명문 대학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고, 정치권과 국내 언론사들의 대학에 보내는 비판과 개혁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학교는 재단의 재정지원과 교수 연구 분야에서 중·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 보완해야 합니다.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연구력 강화 부분은 우리학교가 명문사학으로 확실히 진입하기 위해 인문, 사회, 경상, 이공분야 등 모두가 더욱 정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8년간 우리는 우리학교 양 배움터의 교육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모두가 교직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한 교육 시설들은 타 대학과 비교해볼 때, 겨우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합니다. 제2도서관, 제2기숙사 건설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첨단 시설의 확충은 명문사학으로 가기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선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지식과 인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해 2014년부터 본·분교 통합이 되면서 2중전공 수강, 전과 제도 등 학사운영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글로벌배움터의 이공계 학과들과 어문, 통번역, 인문, 경제, 경영학 등과 융합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여, 우리 대학의 도약을 위하여 분발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직원노조 파업의 아픈 상처를 겪었지만 그것은 우리 외대의 변화와 개혁에 시발점이 되어 오늘날 우리 외대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생존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교수, 학생, 동문 등 모든 외대가족들에게 큰 자극이 되어 오늘의 외대로 변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 2014년은 우리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역사에 걸맞은 외대의 도약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저를 굳게 신뢰하고 외대 발전에 함께 동참하고, 묵묵히 지지해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신 외대 가족 여러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총장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발전과 행운이 안정 속에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권순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장

권순한 총동문회장 축하

우리학교의 제10대 총장으로 선임되신 김인철 교수님께 먼저 11만 동문을 대표해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신임 총장님께서는 모교의 교무처장과 대외부총장 등 교내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밖으로는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뛰어난 행정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친화력과 인품으로 교수, 학생, 직원 그리고 동문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모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분이 총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가는 각종 대학평가, 반값 등록금 이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거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신임 총장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대학의 웅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뛰어난 21세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랑스러운 우리 모교를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비록 외대나 약대가 없고 이공계도 규모가 작은 종합대학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들을 배출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명문대학으로 자리 잡았고 더 나아가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만족하지 않고 모교가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 반열에 오르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신임 총장님의 지혜가 어우러진다면 우리의 소망은 결코 막연한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모교와 동문회의 관계는 마치 실과 바늘처럼 일심동체를 이루고 있는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동문회가 모교에 변함없는 지원군의 역할을 한다면 모교는 동문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의 원천이 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총동문회는 모교와 변함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응원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열과 성을 다해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명예롭게 총장직을 이양하시는 박철 총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떠나시는 총장님의 행복과 건강을, 부임하시는 총장님의 건승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박응구 교수협의회장

박응구 교수협의회장 축하

우리학교의 제10대 총장이 탄생했다. 교수협의회회의 총장후보선출 규정에 의하면 1, 2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인 3차 투표를 시행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총장후보선거에서는 예외 없이 3차 투표에 이르는 팽팽한 접전 끝에 아슬아슬한 차이로 1, 2위의 명운이 갈렸다. 이번 선거에서 김인철 당선자는 각종 신기록을 세우며 여섯 번째의 직선 총장에 등극했다. 최초로 2차 투표를 결선투표로 만들었음은 물론 65%라는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김인철 차기총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향후 4년 동안 우리학교를 견인할 김인철 차기총장은 정작 그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한경쟁의 격랑에 휩싸인 대학사회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추락한 우리 학교의 위상을 5대 명문사학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해 개교 60년을 맞이하는 우리학교는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간 우리학교는 글로벌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수 없이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도해 온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명문사학으로서의 위상을 구가하며 구성원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옛 명성은 날이 빛을 바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년 동안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증폭됐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실종되고 구성원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 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통섭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학교발전을 안주 삼아 오가던 학내 구성원들의 파스하고 여유로운 대화 속의 애교심이 그립다.

이번 선거는 우리학교가 5대 명문사학으로 부활하느냐 이대로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의 선택이었다.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김인철 차기총장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교육 및 연구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외대의 고유가치를 살리기 위한 융·복합학의 창출, 노후화 된 캠퍼스 인프라의 현대화, 재정확충을 통한 학교예산 규모 확대’ 등의 비전을 내걸고 당선됐다. 교수님들은 물론, 직원과 학생들께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압도적인 지지에 보답함은 물론 우리 대학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 당선을 예비신임으로 생각하고 향후 4년 동안 눈부신 활약을 통해 안팎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모든 외대 가족으로부터 참 신임을 얻어내길 바란다.

김인철 차기총장의 영광스런 당선을 10만여 외대 가족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신승철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부장

학내 모든 구성원의 한결같은 지지 속에 김인철 교수님께서 제10대 총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의 총장은 글로벌시대, 무한경쟁의 바다를 항해하는 한국외대라는 이름의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의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수백 명 선원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추진력을 갖는 배는 단 하나의 부품고장이나 단 한 명의 실수에 의해서도 멈추거나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총장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정확한 방향제시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지혜

와 열정이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위치입니다.

앞서 후보자로 나오신 많은 분들의 평가에서나 총장후보자에게 바라는 구성원들의 요구에서 공히 확인됐다고 피, 지난 8년 동안 우리학교는 학교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 결과 경쟁력 하락이라는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의 부재는 학교운영과 정책결정과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배제해 정책을 추진하고 완성시킬 대학발전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제10대 총장후보 선출 과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구성원 상호간 이해와

화합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대학운영의 기풍이 새로이 살아나 우리학교 발전의 역사가 새로 쓰여 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핵심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계발하게 하고,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통해 조직의 목표를 이뤄가는 능력이라고들 말합니다. 당연히게도 파트너십을 이루는 기초는 그 조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신뢰와 믿음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쩌면 김인철 신임 총장님께 거는 기대가 더욱 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신임 총장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특히 두 동료직원의 죽음을 낳았던 지난 8년간의 갈등의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열악해진 근무환경과 떨어진 사기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 역시 행정의 수장으로 선출되신 김인철 신임 총장님과 함께 대학발전과 행정전문화를 위해 매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인철 신임 총장님의 임기가 끝난 4년 후, 진정 우리 대학의 발전을 이끈 훌륭한 총장님으로 구성원들의 마음과 우리 대학 역사 속에 우뚝 서시기를 기원합니다.



조봉현(시범·영교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외대의 위기가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당선을 축하드려야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수님과 교직원선생님, 학생들의 믿음을 업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받을만한 일이며, 이를 이번 선거로 확인하셨는데 대해 깊이 축하드립니다. 위험의 외대를 기회의 외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진심을 담은 축하와 제언을 드립니다.

소통하는 총장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총장후보토론회에서 '학생의 의견이 공약에 얼마나 반영됐느냐'고 여쭙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의 공약집에는 학생의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까? 최소한 교수님의 비전과 생각에 대해 '학생의 피드백'은 있었습니까? 정치인은 표를 먹

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인철 교수님께서서는 교수님들을 위한 공약으로 표를 확실히 얻어가셨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바라던 총장후보자의 모습과는 확실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임기 2년차에 재신임투표를 실시하는 다른 후보 교수님의 제안에 김인철 교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외대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으며 감동했습니다. 우리학교에서 정치인이 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정집단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선거 중 공약은 그렇지 못했어도 취임 후엔 교수뿐만 아닌 학생, 교직원을 모두 생각하고 아우르는 외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과 글로벌의 의

미를 분명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점은 '고등교육기관'이라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하향식으로 감속하고 취직과 순위를 위해 점수를 올리는 공간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각박한 사회분위기에 속자논리로 교육기관의 본질을 해하지 마시고, 교육과 대학의 의미를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글로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외대를 진정한 글로벌 선도대학으로 만들어주시길 기대합니다. 외국어와 유학만으로는 글로벌이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기준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한발자국 앞서서 세계를 내다보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꿈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꿈을 버려야 한다면, 버려지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배려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대는 한 집단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하는 외대를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총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바라는 점도 많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고 있습니다. 갈등과 시비를 위해 이런 제언을 드린 것이 아니라 는 것도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자로서, 후배로서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계신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외대를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전형근(통번역·영어 08)
글로벌 배움터 총학생회장
이상호(국제지역·인도 10) 부총학생회장

안녕하세요.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 제 34대 채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전형근, 부총학생회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우리학교의 제 10대 총장에 당선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덧 2013년 한 해도 4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시행될 본·분교통합에 대한 양 배움터의 합의문이 도출됐고 글로벌배움터에는 캠퍼스의 랜드마크가 될 다목적관(신본관)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신임 총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시행되는 본·분교통합은 우리 학교가 명실상부한 대형대학으로서 발돋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임 총장께서는 제 10대 총장선거 정책자료집을 통해 양 배움터의 발전을 위한 많은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글로벌배움터의 자율행정 강화, 교육 및 시설등의 인프라 개선, 교통여건 개선과 서울배움터의 교세확장 및 인프라 구축, 양 배움터의 발전을 위한 입시 및 장학, 행정, 연구에 관련된 부분 등과 함께 재정적인 부분, 융복합교육에 대한 부분 등과 같이 정책안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는 신임 총장께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해내시겠다고 제시해주신 방안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두 가지 당부만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의 3주체 중 하나인 우리 학생들의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어떠한 중대한 결정에 앞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결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의 3주체는 교수, 직원, 학생입니다. 이 중 하나의 의견을 무시한 의사결정과 진행을 통해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오지는 신임 총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만을 위한 대학의 운영을 해주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임 총장께서

는 교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맞춤형 문제해결사'가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학생, 교수, 직원의 각 구성원들을 위한 맞춤형 문제해결사도 동시에 돼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양 배움터의 불균형한 성장에 대해 글로벌배움터와 서울배움터, 양 배움터간의 차별 없는 발전과 인식제고를 당부 드립니다.

각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때, 우리학교는 글로벌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인철 교수님의 제 10대 총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국내 최고의 글로벌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내년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1954년 5개의 외국어학과로 출발하여 지금은 11만명의 동문들이 국내외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호홉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의 역사가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기억하고 계승할 동문회관 건립을 위해 ARS 모금을 시작합니다.

한 통화의 사랑 ... 외대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장 권순한

외대사랑 동문회관 건립기금 060-700-0202 (1통화 만원)

‘외대언론협동조합’ 탄생 월간지 ‘외대알리’ 창간해

지난 달 8일 우리학교 학생들이 언론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외대언론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다양한 매체를 제작해 학내언론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11월 20일에는 총장후보선거특집호로 꾸며진 월간지 ‘외대알리’의 창간호를 발행했다.

외대언론협동조합은 학교에서 독립된 언론으로서 조합원에게 편집권이 있으며, 조합비를 통해 정기적인 수익을 얻어 사업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 간행물 발행뿐 아니라 팟캐스트

트·어플리케이션 등 매체 제작, 각종 수익사업 등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학생은 신청서와 조합비 납부의 가입절차를 통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외의 자격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후원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임채운(동양어·몽골어 11) 외대언론협동조합 이사 겸 외대알리 편집장은 “외대알리는 ‘외대인의 알 권리’의 줄임말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 충족시키고자 만들어졌다”며 “언론의 독립성을 지켜나가 학내의 소통을 돕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대알리는 앞으로 한 학기 4회 양 배움터에 각 1,000부씩 발행될 예정이다. 강한솔(서양어·스페인어 13) 군은 “외대알리는 학교 산하의 학내언론이 다루지 못하는 측면까지 다룰 수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의 학내언론도 구독하는 학생이 별로 없는데 또 다른 학내언론이 만들어져 비효율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그녀들의 노력에 박수를 FC Holics, “내년 목표는 본선 진출!”



▲경희대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환호하고 있는 박희경(동유럽·우크어 11)양

우리학교 여자축구팀 'FC Holics'가 'K-리그컵 여자대학클럽축구리그'에 참가해 4년만에 처음으로 1승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K-리그컵 여자대학클럽축구리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여성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하고자 2010년 1회를 시작으로 매 해 개최하는 여대생들의 축구 축제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 일간 가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

번 대회에는 12개 대학교의 여자 축구팀이 출전했다. 우리학교는 조별예선에서 경희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와 시합해 1승 1무 1패의 성적을 거둬 본선 진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글로벌배움터 국제스포츠레저학부 학회에서 시작해 동아리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FC Holics는 3년간 본선 진출은 커녕 한 골이 간절했다. 이번

K-리그컵 여자대학클럽축구리그에 참가한 20개 팀 가운데 체육대학이 없는 대학 팀은 FC Holics를 포함해 2팀뿐이다. 그러다보니 FC Holics는 늘 ‘약체’팀으로 구분됐다. ‘조별 예선에서 외대를 만나면 본선에 진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해 FC Holics는 1주일에 6시간씩 훈련하며 4년만에 처음으로 1승을 거두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경희대와 무승부로 게임을 마치는 등 괄목할 만한 실력을 뽐냈다.

FC Holics의 주장 임상우(국제지역·국제스포츠 12) 양은 “1승이라는 결과물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이끄는 대로 따라와준 선수들,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코치님,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다음 해에는 본선 진출이 목표”라며 자신 있게 말했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2014년 학생회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소개합니다

2014년 한 해가 다가옴에 따라 양 배움터 새로운 학생대표자들이 선출됐다.

서울배움터의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입후보자 등록 부재로 선거가 무산됐다. 12월 2일 열린 비상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정희웅(사범·한교 10) 동아리 연합회장이 비대위 임시의장으로 선출됐다.

글로벌배움터는 ACTION 선거운동 본부 최한솔(동유럽·루마니아어 10) 정후보와 황장호(통번역·영어 09) 부후보가 단일 후보로 출마했으나 투표를 미달로 선거가 무산됐다.

한편 양 배움터 선거를 마친 단과대학의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배움터에서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김상혁(사회·미디어 12) △법과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김현중(법·법 08) △동양어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고은비(동양어·인도어 12) △중국어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백수정(중

국·중국 12) △글로벌경영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유경원(경영·경영 12) △국제학부 학생회장 당선자 이동희(국제 11) △사범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유새롬(사범·프교 12)이 당선됐다. 한편 △서양어대학 △상경대학 △일본어대학은 후보자 부재로 선거가 무산됐다.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인문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김주영(인문·언어인지 12) △통번역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임대치(통번역·일본어 09) △동유럽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이선환(동유럽·루마니아어 10) △국제지역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조국인(국제지역·프랑스 10) △경상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김정원(경상·국제경영 10)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김정현(자연·수학 09) △공과대학 학생회장 당선자 정문석(공과·산업경영 09)이 당선됐다.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당신의 꿈을 두드려라 DO DREAM? DODREAM!

지난 10월 ‘연애특강’의 이재목 연애컨설팅트거, 11월 세향관에 가수 김진호가 다녀갔다. 이런 공연기획의 주인공은 바로 ‘DO DREAM festival’(이하 두드림)이다. 현재 중앙 동아리 인준과정을 밟고 있는 두드림은 김동욱(경상·경제 07) 군의 주도로 지난 해 11월부터 구상을 시작해 꾸려나갔다. 김동욱 군은 “꿈을 알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스펙 쌓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다”며 “그런 모습에 회의를 느껴 대학생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바람으로 ‘두드림’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구성원은 고수현(자연·환경 12) 양, 서규원(자연·환경 13) 양, 이제연(자연·생명공학 13) 양으로 총 4명이며 2명이 더 추가돼 활동할 예정이다. ‘두드림’은 ‘꿈을 꾸다’와 ‘꿈을 두드린다’는 의미로 고민을 나누며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연사와 청중 간 공감을 통해 청중만의 고유한 꿈을 키워

나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드림은 이번 해 3월 ‘내 얘기 좀 들어봐’로 시작해 ‘Microsoft MVP 초청강연’, ‘연애특강’, ‘김진호의 목소리’ 등 현재까지 총 6회의 행사를 진행했다.

두드림은 이번 해로 1년 째 활동에 접어든다. 김 군은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된 예산도 회의 장소도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지만 지금 ‘DODREAM’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이 난다”며 유쾌한 웃음을 지었다.

두드림의 슬로건은 ‘Be ambitious, Be yourself, Be the only one’이다. 최고가 되기보다는 유일한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다. 김 군은 “현재는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배움터 학생들까지 청중으로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 두드림이 더욱 발전해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강연을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뚝배기 한 그릇 하고 가세요! 제 4회 생협배 왕산 요리왕 대회 현장 속으로



▲왕산요리대회에 '김치즈돈' 팀으로 참가한 윤섯별(자연·통계 10)양이 대회 중 '치즈돈까스 김치나베' 조리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글로벌배움터 후생복지관 식당에서 ‘생협배 왕산 요리왕 대회’가 열렸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이번 학기로 4회째 주최하는 행사로 심사위원의 입을 사로잡는 음식은 학생식당 메뉴로 선정된다. 대회의 주제는 ‘뚝배기’였다. 김문배 상임이사, 정진성 사무국장, 이민석·이원우 조리사, 신의진 생협 학생위원장이 심사위원으로 나섰다. “학생 식당 메뉴로 제공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주길 바란다”는 정진성 사무국장의 말로 대회가 시작됐다.

대회는 요리 1시간 심사 15분을 포함해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영통의 요리비결’, ‘내사랑 뚝배기’, ‘김치즈돈’, ‘A동605호’, ‘엄마달’, ‘엽록소가 뛰어올라 에메랄드 알

을 낳았더니 세상이 바뀌었다’(이하 엽록소), ‘나혼자 뚝배기’ 총 7개의 팀이 참가했다. 각 팀은 매콤 동파육 찌개, 매콤 들깨 순대국, 치즈돈까스 김치나베, 카레 순두부찌개, 얼큰 스기냐끼 수제비, 에메랄드를 품은 뚝배기, 등갈비 묶은지 뚝배기 등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였다.

심사기준은 △학생 식당에 어울리는가 △재료의 느낌 △재료의 맛과 영양 △위생 △재료 활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 심사위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선정된 1위는 김치즈돈팀(윤섯별)의 ‘치즈돈까스 김치나베’가 차지했다. 2위는 엄마달(조유진·이해랑)의 ‘얼큰 스기야끼 수제비’, 3위에는 엽록소(정규현·정승모)의 ‘에메랄드를 품은 뚝배기’가 뒤를 이었다. 1위부터 각 우승팀에게는 상품으로 CJ상품권 20만원, 네스카

페 돌체구스토, 가습기·미스트가, 참가팀 전원에게 소정의 재료비가 주어졌다.

김문배 상임이사는 “1위를 차지한 김치즈돈팀의 음식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맛있었다. 무엇보다 학생식당 메뉴로 제공될 수 있는 상품성이 있었다”며 심사평을 전했다. 윤섯별(자연·통계 10)양은 “기대치 못한 우승을 해서 기쁘다. 학생들이 식당에서 내가 만든 요리를 먹는다는 상상을 하니 뿌듯하다”며 우승소감을 밝혔다. 또 2위를 한 조유진(통번역·영어 12) 양, 이해랑(동유럽·폴란드 12) 양은 “실용상을 받은 우리 요리가 학생식당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양 배움터 총학선거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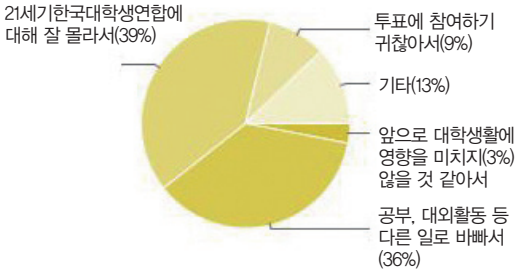
양 배움터 총학생회(이하 총학)선거가 무산됐다. 서울배움터는 지난 달 후보자 부재로, 글로벌배움터는 단선후보가 출마했으나 투표를 미달로 선거가 무산됐다. 양 배움터 총학선거가 모두 무산된 경우는 개교 이후 처음이다. 더욱이 글로벌배움터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무산된 사례가 없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세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학기 새로 제정하게 된다. 이번 심층보도를 통해 우리학교 양 배움터 총학선거가 무산된 과정과 선거무산에 영향을 준 요인들에 대해 진단해본다.

서울배움터

◆위기의 총학생회

서울배움터의 제 48대 총학생회 선거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추천 및 입후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감기한이었던 13일 18시까지 아무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후보자 부재로 총학 선거를 진행할 수 없어 이번 선거는 무산됐다.

총학 선거 무산은 우리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대에서는 이번 해 처음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11년 연속 투표를 미달을 기록했다.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또한 총학 선거에 단일후보만이 출마하는 실정이다.



▲5일, 6일 2일 동안 외대학보 페이스 북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재신임 정책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

◆선거 무산 이유로 학생들 무관심 대두

서울배움터 총학 선거 무산은 2011년 이후 계속해 이어져왔다. 2012년과 2013년에도 보궐선거를 거쳐 겨우 총학생회가 들어섰다. 조봉현(사범·영교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잇따른 총학 선거 무산의 원인으로 “학생회라는 조직이 신뢰를 못 받고 학생회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학생들이 학생회와 학내 안건 등 학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총학생회 선거에서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치러진 제 10대 총장 선거 학생 온라인 투표는 20%의 투표율에서 그쳤다.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1

세기한국대학생연합 재신임 정책투표에는 재적인원 7981명 중 985명이 투표해, 12.5%로 성사투표율 10%를 겨우 넘겼다.

◆무관심에 학생 위한 공약 이행도 어려움 따라

계속되는 무관심으로 총학생회도 학생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낮은 참여율로 학생들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 본·분교통합에 따라 이어질 학사제도 개편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조봉현 총학생회장은 “학사제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일에서 학생들의 지지나 피드백이 부족해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여론이 잡히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견 수렴이 되지 않으니 찬성과 반대 여부도 알 수 없어 공약 이행에 차질을 겪는다는 것이다.

◆무관심, 왜?

이러한 문제에는 취업과 스펙을 우선시하는 사회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쫓겨 학생들이 학내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외대학보 페이스북에서 12월 5일부터 6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재신임 정책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36%의 학생들이 ‘공부나 대외활동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바빠서’라고 답했다.

학생회의 시스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회라는 구조는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과 학생회와 학년 대표, 일반 학우를 상향식, 하향식으로 자유롭게 거치며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이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학생회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조봉현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에서 일반 학생까지 의견이 내려가는 것은 그나마 되고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목소리를 총학생회가 듣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학생회 내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배움터

◆투표를 미달로 유래 없는 선거무산

지난 달 29일 시행된 글로벌배움터 총학선거의 개표는 전체 선거인단수 6962명 중 총 투표자 수 3353명(48.16%)로 유효투표율 50%에 미

치지 못해 무산됐다. 지난 달 1일까지 총학생회장 입후보 등록이 끝난 후, 11일에서 25일까지 단일 후보자 ‘READY ACTION’(이하 ACTION)의 최한솔(동유럽·루마니아어 10)정 후보, 황장호(통번역·영어 09)부후보의 선거 유세를 펼쳤다. 그 후 26일에서 28일 3일간 인문경상관, 어문학관, 공학관, 자연과학관 총 4곳에서 투표가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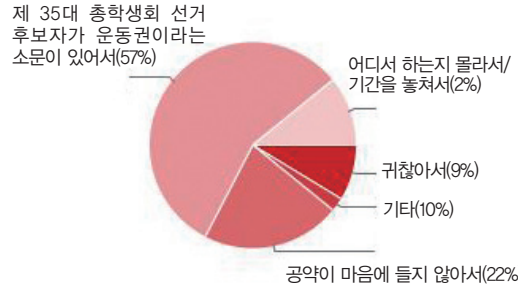
투표가 끝난 28일 오후 7시 공학관에서 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개표 전 ACTION 선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는 선거세칙을 위배했다고 이의제기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투표 셋째 날인 28일, 어문관 투표소를 10분 늦게 열어 투표를 하지 못한 학생이 있음을 인정하고 투표연장을 결정했다. 그리고 다음 날 29일 통번역대학, 국제지역대학, 동유럽대학, 인문자유전공학부 유권자 중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에 한해 어문학관 입구에서 오전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동안 연장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연장에 대한 내용은 29일 00시 30분경 SNS상에 공고했고, 오전 11시에 개표가 이뤄졌다.

투표 셋째 날인 28일 투표개시가 늦춰진 일로 국제지역대학 학생회장과 전 동유럽대 학생회장은 중선관위 직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손보미나(국제지역·아프리카 10) 국제지역대학 학생회장은 ‘기상시간이 늦어져 투표소 도착이 늦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에 용인시처인 구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시작 시간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투표시간을 연장했음에도 투표를 미달로 선거는 무산됐다. 하지만 서울배움터의 심각하게 저조한 투표율과 달리 글로벌배움터는 단순히 투표에 대한 무관심만이 무산의 요인은 아니다.

◆글로벌배움터 학생여러분, 투표하셨나요?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글로벌배움터 학생들 115명을 대상으로 5일, 6일 2일 동안 외대학보페이스 북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0%(69명)이 투표했다고 답했다. 그 중 59%(41명)가 투표한 이유를 ‘우리 학교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로 꼽았다. 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0%(44명)중 57%(24명)의 학생들이 ‘제 35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가 운동권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김지혜(통번역·스페인어 10)양은 “이번 총학선거는 투표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며 이번 선거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운동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5%(60명)가 ‘학내 복지보다 사회적 참여나 현실 정치참여에 중점을 두는 집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수를 한참 넘는 72%(82명)의 학생들이 ‘운동권’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그 이유에 51%(42명)의 비율로 ‘실제로 운동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한 적이 있어서’라고 답했다.



▲5일, 6일 2일 동안 외대학보 페이스 북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중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대답

◆운동권? 비운동권?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글로벌배움터 커뮤니티 사이트 ‘HUFSTORY’에는 정후보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등의 운동권 및 비운동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지난 달 8일 ‘HUFSTORY’는 선거관련 글 및 비방, 정치적 성향을 띤 글을 제지하기에 이르렀다.

우리학교 김성수 교수(현대사회의 철학적 이해강의)는 학생들이 막연히 운동권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것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레드 콤플렉스(반사회주의 정서)가 있고,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좌파=빨갱이’라는 도식 등이 상당히 유효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과거 독재체제의 ‘운동권’처럼 현재는 이슈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므로 운동권의 정의, 정치적 성향, 위치 등이 새롭게 정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의 ‘운동권’의 활동에 대해 “학내에 ‘운동권’ 등의 영향은 예전부터 있었고, 학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다음 학기 우리학교는 새로운 총장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본·분교통합의 시대에 이르고, 그에 조금 앞선 이번 방학에는 등록금조율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대변할 학생대표자인 총학 없이 출발을 하게 된다. 다음 해 학기 중 보궐선거를 거쳐 정식으로 총학이 출범하기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에게 매우 불리한 일이다. 하지만 투표라는 민주사회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책임이기도 하다. 정답은 없지만 학생사회의 앞날이 이대로 괜찮을지는 불투명하다. 임수진·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운동중

(글장)

임수진 기자

어깨너머 듣는 교양

김은신(교양학부 '재즈의 역사' 과목 강사)

오심도 경기의 일부?

심판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팀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포가 먼저 터졌다.

12월 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있었던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이번 시즌 두번째 맞대결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 경기는 영원한 라이벌이자 우승후보인 두 팀이 맞붙는 경기인만큼 배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라운드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모습과는 달리 현대캐피탈은 2세트까지 따내며 쉽게 이기는 듯 했지만 삼성화재가 3세트를 승리하면서 승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이 흥미진진한 싸움을 싱겁게 끝낸 것은 오심이었다. 4세트에서 세트스코어 27대 26로 현대캐피탈이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이었다. 레오(삼성화재)의 스파이크가 임동규(현대캐피탈)의 손을 스치고 코트 라인 밖으로 떨어졌다. 규칙대로라면 이 공격은 상대팀 선수의 몸을 맞고 나간 터치아웃으로 삼성화재의 득점이지만 주심은 이 공이 아무것도 스치지 않고 라인 밖으로 나가 현대캐피탈의 득점이라고 판정했다. 심판진들이 모여 이 스파이크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는 동안 경기장에서는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축하하는 폭죽이 터졌고, 결국 판정은 반복되지 않았다. 이미 1번의 비디오 판독 기회를 써버린 삼성화재에게는 더욱 아쉬울 수 밖에 없는 패배였다.

심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야구, 축구, 배

구 등 대부분의 스포츠 종목에서는 감독이나 선수들이 심판 판정에 과하게 항의할 경우 경고를 주거나 심할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그만큼 경기를 운영하고 선수들의 플레이에 판정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그 권위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오심으로 심판은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잡음이 많다. 28일 어문관에서 10분 정도 투표를 늦게 시작하면서 29일 투표를 30분 더 치르기까지 했다. 10분 일찍 시작했다고 선거의 향방이 바뀌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투표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투표가 정해진 시간보다 단 1분이라도 늦게 시작하는 것은 약속한 일정에 어긋나는 일이며 후보들이 선거를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잘못하지는 않는지를 가려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깎는 일이다.

언제까지 ‘오심도 경기의 일부’여야 할까. 이제는 일회성 징계나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기보다 심판들 스스로가 오심으로 인해 추락하는 자신들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어떻게 오심을 미리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

대중을 위한 스윙재즈

스윙재즈는 재즈역사상 가장 보편화되고 대중적 사랑을 받은 스타일로 1930년대에서 1940년대 초기까지의 대부분의 재즈를 ‘스윙재즈’라 하고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스윙시대(the swing era)’라고 한다. 이 당시 음악의 대부분은 열 명 이상의 뮤지션으로 구성된 대규모 밴드가 연주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빅 밴드 시대(the big band era)’라고도 한다.

스윙(swing)은 흔히 ‘흔들다’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탄생의 비화에는 흑인의 절름발 걸음걸이에서 유래했으며,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역동적인 리듬감을 말한다. 스윙감을 주는 제일 큰 원인은 박자에서 찾을 수 있는데 4/4박자 기준에서 1, 2, 3, 4박 중 2박과 4박에 강세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박수를 칠 때 1박과 3박에 강세를 주는 반면 서구인들은 2박과 4박에 강세를 주는 경향이 있다. 스윙재즈는 다른 음악처럼 정박이 아니라 정박을 번박으로 바꿔 연주한다. 이를 ‘스윙리듬’이라고 한다. 혹은 “스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4박자 스윙재즈는 1, 2, 3, 4로 박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land 2and 3and 4and’하면서 ‘And’에 악센트를 강조해 강한 울동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박자를 ‘Off-beat’라고 부르며 스윙재즈에 있어 핵심 구성요소이다.

스윙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스윙재즈다. 스윙재즈는 대표적인 빅밴드 리더였던 백인 클라리넷 주자인 베니굿맨(Benny Goodman)이 1935년 로스앤젤레스

스의 팔로마 볼룸에서 성공을 거둔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스윙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이어서 그가 1938년 1월에 클래식만을 공연해오던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열어 성공을 거둬으로써 재즈가 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스윙재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선창과 회답(call and response)’, ‘리프스타일(riff style)’, ‘교창(antiphonal)’ 등이 있다.

스윙시대에는 스윙의 상업적 가치가 점차 커짐에 따라 즉흥연주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편곡된 악보 형태의 연주가 증가한다. 많은 연주자가 동시에 즉흥연주를 구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즉흥연주의 비중이 적은 편이 흥행에도 보다 유리했다. 또 악보위주의 연습을 통해 각 파트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 멤버의 잦은 교체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즉흥연주는 각 파트별 솔로리스트들이 솔로 구간을 정해놓고 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30년대가 저물어가면서 스윙의 황금시대는 자연스럽게 퇴조하게 된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했고 연주자들 역시 짜여진 각본이 아닌 즉흥 연주 중심의 비밥재즈로 눈길을 돌렸다.

미국의 대공황사건 이후 새로운 경제성장기와 안정기에 성행했던 스윙, 리드미컬한 연주형식으로 밝고 즐거운 시대를 품지했던 스윙, 역동적인 리듬을 듣고 있노라면 자꾸 몸을 들썩이게 하는 매우 신나는 음악이다.

지구촌을 읽다-④

냉각된 한일관계 그 해결책은 있는가?



이상호 교수
일본학부 교수

한국인의 입장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 미래는 어둡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간 외교관계가 거의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 그 해결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이후의 한일관계는 안정과 갈등을 반복하는 곡절 많은 역사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는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물론 그러한 우호적 분위기가 역사인식의 문제나 전쟁책임의 문제, 독도 문제 등과 같은 갈등요소가 부상하면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정상회담의 개최는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고 갈등관계만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는 위기적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소가 상호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에 대한 우려와 신뢰 부족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생각이다. 2012년 12월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하고 아베 정권이 탄생했을 때 한국 국민은 우려의 시선으로

일본의 정치적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자민당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부정, 역사 교과서 검정제도의 수정, 헌법 제9조의 개정을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총리 취임전인 2012년 10월 자민당총재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이다. 물론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정부 주최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수정도 유보하는 등 공약이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도 않았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도 역대 정권과 같이 계승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한국 등 아시아 제국(諸國)을 의식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은 의심의 시선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한 우려와 우경화노선을 지향하는 일본정치권에 대한 신뢰부족이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일본은 한국에게 위협과 견제, 배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전전(戰前)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살아숨쉬고 있다. 전후 7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경제대국으로서의 전후 일본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고 그 이면의 본래 모습은 제국주의 일본, 가혹한 식민통치를

자행한 군국주의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에 의해 실시된 전후개혁이 유사민주주의와 유사평화주의를 낳았을 뿐이며 일본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한국인에게서는 전전 일본으로의 회귀를 연상케 한다. 일본의 내셔널리즘 부활은 필연적으로 헌법개정, 즉 헌법 제9조의 개정이나 해석개헌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독자적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또한 일본정부나 총리가 전전 일본과 전후 일본은 상이하다고 주장하고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를 언급해도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뇌리에는 일본 총리가 사죄발언을 한 후 다른 정치가가 그 발언을 반박하거나 왜곡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망언을 하는 등 사죄와 망언이 수없이 반복돼 온 역사가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인식, 전쟁책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위안부 배상, 독도 영유권 등의 문제로 인해 가시 발길을 걸어 온 정부 차원의 한일관계와는 다르게 민간 차원에서의 한일관계는 중층적·복합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인은 서양이나 중국에 비해 일본인의 생활과 문화에 상대적 친숙함을 느낀다. 일본의 우익정치거나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입각해 ‘협한’을 외치는 일본인은 싫지만 한국인에게 일본은 잘 아는 국가이고 관

심 있는 나라다. 전후 경이적인 경제성장으로 경제대국이 됐고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말이 상징하는 장기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3위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국가기도 한 것이다. 양국을 왕래하는 관광객의 수도 부침은 있지만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 것은 양국 관계의 악화보다 엔고원저 현상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일관계의 악화와 방산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방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위기라고 평가되는 정부간 한일관계로 인해 민간차원에서의 한일교류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민간교류는 확대경향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한일 정부간 정치외교관계의 정상화는 필수적이다. 정치외교관계가 불안정하면 모든 분야의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실현돼야 한다. 아무리 미워도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버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것이 양국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한국의 반일감정과 일본의 협한감정이 서로를 자극하고 있고 냉각된 정부간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

한 기회를 포착하기도 어렵다. 단절된 한일관계는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 대중국 정책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했으며, 미국의 압력이든 조정이든 조만간 어떠한 형태로든 한일 정상회담은 실현되리라 생각한다. 한일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그 중 일부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역사인식과 관련된 갈등요소는 지금까지도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부상할 문제이다. 자! 한국정부와 한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본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해결책은 있는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질문을 한다. “교수님! 한일관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답변이 궁해진다. 고민 끝에 몇 가지를 제시한다. 변하지 않는 일본까지도 포용하고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치·외교적 문제와 경제·문화적 관계를 분리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틀을 설계한다. 지금은 무리라고 해도 미래 어느 시점에서의 일본의 변화를 기대하며 그 역할을 담당할 일본 내 양심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 모든 답변은 인내와 숙고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가능한가? 냉각된 한일관계가, 일본을 버리고 가자고 말할 수 없는 나에게 심각한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고민이 많은 요즘이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다시 가고 싶은 태국연수 이야기



▲학교 상징장소인 새남판 왕궁에서 연수단원과 교수님 및 피리양들이 함께

우리학교에서 어학을 전공한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특수어 학과가 많다는 것과 유학의 기회가 다른 대학교에 비해 훨씬 많다는 것이다. 나 역시 그간 선·후배들이 그래왔듯 단기어학연수를 위해 방콕으로 떠났다.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태국의 명문 학교인 ‘썰라빠견 대학교’로 다녀왔다. 학교 이름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예술대학교’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술계열 학과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전공이 개설돼 있으며 무려 71년이라는 역사가 있는 학교다. 또한 연수단원들의 태국어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피리양’이라고 부르는 도우미를 선발해 돕고 있다. 하지만 종종 문화차이를 느끼는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 예를 들면 연수단원도 연수 중에는 썰라빠견 대학교 소속의 학생이기 때문에 학칙에 따라 교복을 입어야 하기도 하고, 태국의 ‘제 3의 성(性)’이라 불리는 ‘프라타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 즐겁게 혹은 당혹케 했다. 가끔 피리양들은 나에게 왜 고어(古語) 내지는 사어(死語)를 쓰냐고 물었다. 사실 그 이유는 사전을 찾아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로 무심코 사용하고 있던 것이다. 또 국내 뉴스보도 등에서 전하는 한류 열풍에 대해 그동안 시답잖게 생각했지만, 태국의 변화가에서 스치는 한국 최신가요를 듣고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인터넷 유행어나 실제 정치동향 등 최신정보를 파악하려면 현지에 와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다. 여전히 태국어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통해 보다 전공에 대해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한국어와는 상당 부분 차단된 곳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 이번 연수단원 중에는 태국어가 1전공이 아닌 이중전공인 학생도 있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전공, 부전공에 상관없이 직접 그 나라를 방문해 공부하는 기회는 똑같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혹시 이중전공자나 부전공자더라도 뜻이 있다면 잘 알아보아 제도의 수혜를 누리보길 바란다.

채중훈(동번역·태국어 08)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iBT-영어·중국어』

iBT-영어·중국어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는 2013년부터 컴퓨터 기반의 iBT-영어와 iBT-중국어를 개발하여 주 1회 이상(iBT-영어), 월 1회 이상(iBT-중국어)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는 1999년부터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개발 시행하였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개발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평가도구 개발 Know-How를 집약시켜 컴퓨터 환경에서 듣기/읽기, 쓰기, 말하기 시험(듣기/읽기만 선택가능)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을 개발하였습니다.

iBT-영어, 중국어의 세부 시험 구성과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별 구성 및 시간 : 듣기/읽기만 신청 가능>

교시	구분(영역)	문항유형	문항수	시간(휴식시간제외)
1교시	듣기	3,4지선다형	50문항	40분
2교시	읽기	4지선다형	50문항	60분
3교시	쓰기	입력	3문항	40분
4교시	말하기	녹음	6문항	13분30초
계		109문항		155분

- ▷ **평가영역** : 듣기-읽기-쓰기-말하기(듣기/읽기는 객관식, 쓰기, 말하기는 과제수행 형식)
- ▷ **답안채점** : 듣기/읽기 영역의 경우 자동채점으로 시행하며 쓰기, 말하기 영역은 FLEX센터에서 인증한 전문 채점의원이 채점하여 응시자의 취득점수에 근거하여 9개 등급(1A~3C)으로 구분하여 결과 발표를 한다.
- ▷ **원서접수** : 가. 인터넷접수 : iBT 홈페이지(<http://ibtflex.hufs.ac.kr>)
나. 접수기간 : 월 09:00 ~ 금 17:00(시험시행 1주전 종료)
- ▷ **결과발표** : 시험후 1주일 내 결과 발표(홈페이지)
- ※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세상을 깨우는 시대의 기록 ‘역사’

소외된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균형잡힌 역사관 가져야

우리학교 사학과 반병률 교수



책으로 배운 역사, 과연 어디까지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우리학교 사학과 반병률 교수와 역사 속에서 소외된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사, 역사문화연구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평가위원 등을 지내고 현재 국제한국사학회 상임대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반 교수는 “나는 강자에게는 강하지만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진다”며 소탈한 웃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반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한국근현대사이다. 사회주의와 관련된 독립운동사, 러시아·북간도지역 및 동북삼성지역 해외이주사, 구소련권 한인들을 연구했다. 현재 러시아 원동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인농촌마을과 집단농장의 형성과 변화과정,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한 한인혁명가들의 역사 회상과 논쟁, 이인섭, 김철수, 홍범도 등 항일혁명가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역사학자에게 듣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번 해는 함경도 농민들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지 150주년이 된다. 반 교수는 다음 해에 열릴 ‘러시아 한인이주 150주년 행사’에서 전체 학계 대표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만큼 그는 러시아와 관련된 한인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고려인(한인)사회의 구성원은 다양하나 크게 보아 19세기 후반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기 시작한 함경도 출신 중심의 이른바 주류와 1930년대 말과 1940년대 전반 징용으로 끌려가거나 이주한 비주류의 사할린 출신 소수 한인으로 분류된다.

1860년대 이후 150여 년간 구소련지역(현재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들은 △1917~1922년의 10월 혁명과 내전 △1937년 스탈린에 의한 대탄압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20여 년 전의 소련붕괴와 주요 공화국들의 독립 등 격동의 시기를 겪었다.

대격동을 겪은 1863년 이후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함경도 농민들은 정치적으로는 조국과 결별했지만, 문화적·정신적으로는 조선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이주 후 30년 가까이 러시아 당국의 묵인 아래 이러한 상태가 유지됐다. 그 과정에서 한인들 나름의 역사가 존재하게 된다.

그럼에도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일본, 중국 등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러시아나 동북삼성지역은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고 연구 역시 비교적 침체돼 있다. 이에 반 교수는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끊임없이 파고든다. 사비로 ‘4월 참변 추모제’를 열어 한인 과 러시아인의 행사를 주도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수 십 차례의 답사를 다니며 한인사회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구소련은 미국과 두 축을 이룰 만큼 강대국이었지만 한국사회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러시아의 사회·문화·경제·민족들에 대한 편견이 많이 남아있다”며 “러시아에 갖고 있는 편견 그리고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환경이 러시아와 동북삼성 지역을 연구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선생... 연세 세브란스, 반 교수 소개로 처음 알게 돼

반 교수가 1998년에 발표한 ‘이태준 의사’에 대한 연구논문의 영향으로 2006년 광복절, 몽골에 이태준 기념관이 지어졌다. 연세 의료원은 1993년 몽골 국립대와 의학 교류협정을 맺고 친선병원을 세웠지만 1998년이 돼서야 반 교수의 소개로 이태준의 존재를 알게 됐다. 반 교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태준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인물이다.

대담 이태준 선생은 함안군 군북면 출신으로 세브란스병원 의학교(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회 졸업생이며 의학도 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을 돌보기도 했다. 이후 중국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중국으로 망명,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했다. 31세 때는 몽골로 건너가 ‘동의의국(同義醫局)’이라는 병원을 열고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비밀 연락망으로 활동했다. 이태준은 당시 몽골인 70% 이상이 고통을 받고 있던 매독을 퇴치하면서 ‘부처 의사’라는 칭송을 받으며 34세 때 몽골 마지막 왕 보그드 칸의 어의가 된다. 그 이후에도 한인사회당 지하당원, 상해 임시정부 군의관 간부, 의열단 등 독립단체에서 활발한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1921년 일본군이 가담한 러시아 백위군 운케른 부대가 울란바타르시를 점령하면서 이들에 의해 살해당해 생을 마감했다.

반 교수의 연구는 특히 항일독립운동 흐름에서의 이태준 선생의 역할, 의사가 되고나서의 활약상을 통해 항일혁명운동의 차원을 뛰어넘은 인류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펼친 선생의 일대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반 교수는 “그저 동북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소임으로 생각했을 뿐인데 이태준 기념관이 생기는 등 뜻밖의 주목을 받아 기쁘다”며 미소지었다.

비주류를 연구한다

러시아에 대한 연구여건이 열악한데도 왜 포

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반 교수는 당연히 다는 듯이 말했다. “사회에서 알아주고 연구비도 많이 받는 연구보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분야, 잘 밝혀지지 않은 인물, 사건과 같은 소외된 역사를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은 역사학자의 사명이요, 공정한 역사로 가는 첫걸음이다”. 또 그는 “과거에 소외된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며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쫓다 보면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기득권 세력의 자료만 보고 연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인들은 역사에서 소외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지 못한 사람들을 대변해 줘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역사적 서술이 계속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반 교수는 이러한 비주류 역사연구를 위해서는 특히 언어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반 교수는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에도 능숙하다. 역사학자에게 외국어로 된 사료를 보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언어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

“소외된 역사연구는 역사학자의 사명, 공정한 역사로 가는 첫 걸음”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 균형잡힌 역사관이 필요해

최근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이 뜨겁다. 교과서를 제작한 뉴라이트 진영은 교학사 교과서를 ‘자유민주주의를 처음으로 명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진영에서는 ‘갖가지 오류가 난무하는 친일 교과서’로 비판하고 있다. 반 교수는 지난 2011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재검토’에 대한 토론회에도 나간 바 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역사란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거이기에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통해 미래에 설득력 있는 비전이 돼야한다”며 “현재 기득권은 역사를 권력의 정당화를 위해 동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역사 교과서는 미래지향적이며 또 그렇게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가 권력의 정당화에 이용돼선 안돼”

국제한국사학회 “편협된 사관에서 벗어나자”

현재 반 교수는 국제한국사학회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이 학회는 국가·지역·학파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관의 교환·교류와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현재 그는 우리나라의 대표로 있다.

그는 “국제정세는 ‘평화’로 향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우리민족은 왜 서로 싸우고만 있는지 의문”이라며 분단된 현실로 인해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남북의 편협한 사관에 대해 역설했다. 실제로 그는 조선 공산당을 창당해 독립 운동가로 활동한 박헌영의 전집을 펴내며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념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박헌영은 학계에서 연구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역사학자는 그가 속한 사회에서 특정 역사적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연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사안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하지만 우리사회는 그러한 시도를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내내 반 교수는 “선생님은...”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다. 권위적이기 보다 친근한 모습의 그는 “학생들에게 ‘썰집아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며 털털하게 웃는다. 앞으로도 그의 연구로 우리역사 속에 숨겨진 자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최소영 기자 87artist@huifs.ac.kr
사진 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ifs.ac.kr

〈반병률 교수님의 주요 논문 및 저서〉

—주요논문—

- 세브란스와 독립운동, 연세대학교 의회사 연구소, 1988년
- 신한촌과 노령과 한인사회, 해외한민족연구소, 2000년
- 러시아 당국과 한인민족운동, 아시아 문화, 1997년
- 의사 이태준(1883~1921)의 독립운동과 몽골,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년
- 의사 이태준(1883~1921)의 항일민족운동과 몽골, 역사문화연구, 2005년
- 노령 연해주 한인사회와 한인민족운동 (1905년~1911년), 한국근현대사학회/한국근현대사 연구, 1997년
- 러시아 지역 항일여성독립운동, 3.1여성동지회, 2006년.

- 한국인의 러시아이주사 : 연해주로의 유랑과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한글학회, 2001년
-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지산허, 한국근현대사학회/한국근현대사연구, 2004년
- 4월 참변 당시 희생된 한인애국지사들, 역사문화연구, 2007년

—주요 저서—

-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신서원, 2013)
- 『1920년대 전반 만주 러시아 항일무장투쟁』(독립기념관, 2009),
- 『국외 3·1운동』(공저, 독립기념관, 2009)
- 『성재 이동휘 일대기』(범우사, 1998)
- 『우스베키스탄 한인의 정체성 연구』(공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아리랑의 어제와 오늘, 그 가치를 찾아서



지난 12월 3일 우리학교 사이버관에서 FBS(한국외대 교육방송국)와 외대합창단이 주최하는 '10개 언어로 부르는 아리랑 콘서트'가 열렸다. 이 콘서트는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고, 아리랑 문화콘텐츠가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아리랑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등재에 힘입어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생산을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콘텐츠는 점차 확산돼 세계적인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해 3월, 파리에서 열린 재즈보컬리스트 나윤선의 공연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이 공연에서 자신의 새 앨범곡과 함께 재즈로 편곡된 '아리랑'을 불러, 현지 매체와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았다. 이렇게 아리랑은 한국적 정서를 대표하면서, 또한 세계적 문화로의 변용이라는 과정을 통해 문화콘텐츠로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아리랑'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아리랑'이라는 단어는 곳곳에서 사용되고, 그 가락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의 각종 국제/국내 행사에서 연주되거나 불린다. 이렇듯 아리랑은 '한국적인 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고유명사 혹은 상징적인 연주곡으로 인식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아리랑'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아리랑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한국문화와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리랑의 다양한 변용이, 그 본질적인 시원과 의미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그저 단순한 변형이나 소비적 형태의 문화에 그치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한국적 정서를 대표하면서, 또한 세계적 문화로의 변용”

◆ 아리랑과 다양한 기원설화

아리랑의 말뜻이나 어원은 다양한 설이 있지만, 확정된 정설은 없다.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아리랑 민요의 받음 소리(후렴구)나 매김소리(민요를 부를 때 한 사람이 앞서 부르는 소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민요로서의 아리랑은 후렴구의 '아리랑' 소리를 제목으로 따서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받음 소리와 매김소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사는 즉흥적, 다변적인 모습을 취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종류의 아리랑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다. 아리랑의 가사는 남녀 간의 사랑, 이별, 탄탄, 시대상, 풍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적 아리랑은 세 가지를 꼽아 볼 수 있는데, 강원도 정선아리랑, 경상도 밀양아리랑, 전라도 진도아리랑이 그 것이다. 각 아리랑들은 그 내용과 성격을 달리한다. 정선아리랑은 슬픈 내용과 함께 애절한 가락이 특징이며, '아라리' 또는 '아라리 타령'이라고도 한다. 고려왕조를 섬기던 선비(士人)들이 고려가 멸망하자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해 정선지방에 숨어살게 됐고, 자신들의 충절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시(詩)로 승화했다. 이후에 이 시를 풀어서 민요로 만든 것이 정선아리랑이라고 한다.

밀양아리랑은 빠른 장단, 경쾌한 가락이 특징이다. 밀양아리랑은 다음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다. 밀양부사 이모(李某)에게 아랑(阿朗)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마침 관아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가

아랑을 사모하게 됐다. 남자가 아랑을 사랑하게 되자 침모(針母)로 해금 아랑을 유인하게 했고, 아랑은 침모의 권유로 인해 달구경을 가게 된다. 달구경을 간 곳에서 남자는 아랑에게 간절히 사랑을 표현했지만, 아랑은 거절했고 남자의 무례한 행동을 꾸짖었다. 분개한 남자는 아랑을 살해해 숲 속에 묻어버리고 도망쳤다. 사람들은 아랑을 사모하면서 '아랑, 아랑'이라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이 밀양아리랑이 됐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진도아리랑은 육과 상소리, 한탄·익살이 섞여있다는 특징이 있다. 비교적 빠른 편이며, 비음과 장식음 사용이 많다. 역시 마찬가지로 진도아리랑도 기원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기원 설화가 있다. 하나는 설이향과 소영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로는 무명의 처녀와 총각의 이야기다. 두 설화 모두 엇갈린 사랑에 대한 비통함을 주제로 한다.

첫 번째 설화는 다음과 같다. 설이향은 갑목관(당시의 목장관리자)의 딸이었고, 소영은 진도 고을 수령의 아들이었다. 둘은 서로 사랑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만남을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 소영이 설이향을 만나러 오지 않았고, 그 후로는 만날 수 없다가 소영이 다른 처녀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설이향에게 전해지게 된다. 설이향은 결혼 행차를 가로막고 죽고자 결심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머리를 잘라 중이 됐다는 이야기다. 설이향과 소영이 만날 때, 나무꾼들이 이들을 보고 '아애랑 설이랑 아라리가 났네' 하고 노래하던 것이 진도아리랑이 됐다고 한다.

또 다른 설화는 다음과 같다. 무당이 되기를 비관한 한 총각이 사랑했던 정인(情人)과 혼약한 채 육지의 다른 집 머슴살이를 하러 나갔다가, 그 집 처녀와 눈이 맞게 됐다. 결국 정인을 남겨둔 채 총각은 결혼을 하게 됐고, 혼인 사실이 알려지자 진도로 돌아오게 됐다. 소식을 들은 옛 정인이 이를 보고 서럽게 울며 불렀던 노래가 진도아리랑이라고 한다.

◆ 아리랑으로 들여다 보는 우리 민중의 삶

각각의 아리랑은 이렇듯 각자의 기원 설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설화가 직접적인 형성의 기원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를 통해 당시 민중들의 삶과 정서가 민요인 '아리랑'에 투영됐음을 알 수 있다. 아리랑의 역사적 시원을 따진다면 고려가요에서 등장하는 후렴구의 전통을 이었다는 점에서 고려시기로 소급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아리랑이 조선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과 유사한 운율 구조를 형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의 '민요로서의 아리랑'은, 근대 이후에 가요적 성격이 결합돼 만들어진 아리랑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경복궁 중건사업 당시 인부들이 즐겨 부른 민요들이 모여 형성된 것이 '아리랑'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각 지방색을 띤 민요가 근대시기를 거치며 종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지방 각지에서만 구전되던 민요들이 인부들을 통해 수렴되고, 이 인부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아리랑을 전파해 다시금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아리랑의 수렴과 확산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기인한다.

“아리랑은 당대 민중들의 상을 투영하는 대상이며,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문헌기록으로는 1896년, 미국인 선교사 헐버트(Homer B. Hulbert)가 'Korean Vocal Music(한국인의 소리)'에 처음으로 서양식 기보법을 사용해 기록한 것이 남아있다. 헐버트는 언어·역사 학자로서 육영공원의 교수로 초빙되기도 했고, 또한 대한제국 정부 고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한국학에 깊은 관심을 토대로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한국 민요인 아리랑의 채록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헐버트는 “포구의 어린 아이들도 부르는 아리랑은 조선 사람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노래이며, 조선 사람은 즉흥곡의 명수이고 바이런이나 워즈워드 못지않은 시인들”이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한국 민요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후의 아리랑은 일제 강점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민중들의 슬픈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표상됐다. 아리랑은 당대의 문화 및 예술작품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투사됐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나온 규의 영화 아리랑(1926)을 들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아리랑의 삽입과, 아리랑 고개에서의 이별이라는 작품구성을 통해 한(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아리랑의 또 다른 정서적 투사는 김산의 전기(傳記) 아리랑을 예로 들 수 있다. 종군 여기자 님 웨일즈(Nym Wales)가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김산의 일대기를 구술 채록해 남긴 이 전기에는 다음과 같이 아리랑을 언급하고 있다.

“조선에는 민요가 하나 있다. 그 것은 고통 받는 민중들의 뜨거운 가슴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운 옛 노래이다. 심금을 울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은 슬픔을 담고 있듯이, 이것도 슬픈 노래다. 조선이 그렇게 오랫동안 비극적이었듯이 이 노래도 비극적이다…….”

이렇듯 아리랑은 당대 민중들의 상을 투영하는 대상이며, 그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일

제는 아리랑에 저항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래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아리랑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면서 이렇게 변용되고, 당시 민중들의 정서와 생활을 그대로 함축했다. 아리랑은 신하의 충절을 표상하기도, 한편으론 정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표상하기도 했다. 내용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제각각이어서, 비통한 곡조와 흥겨운 곡조를 넘나들며 불리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리랑은 때로는 흥을 돋우는 유행가로, 때로는 힘든 노동에서 지루함을 잊기 위한 노동가로 불렸다.

◆ 앞으로 세계로 나아갈 우리 아리랑

아리랑은 한국인의 서정적 시로서, 또한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곡으로서, 정서적 유대와 함께 민족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는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것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기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 및 사업을 통해 각지에 남아있는 아리랑을 채록하고 전승하는데 힘써야 하며, 아리랑과 연관된 문화콘텐츠들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랑의 역사적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리랑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아리랑이 소수가 향유했던 문화가 아니라, 넓은 계층과 민중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아리랑이 가야할 모습 또한 더욱 자명해진다. 이 또한 몇 명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우리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아리랑의 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한국문화를 세계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상일 객원기자

정선아리랑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역수 장마 질라나
만수산 검은 먹구름이 막 물려든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밀양아리랑

날쭙보소 날쭙보소 날쭙보소
동지선달 꽃본듯이 날쭙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진도아리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웁웁웅 아라리가 났네
문경새재는 웬 고개이고
구비야 구비야
눈물이 난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임수진 기자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얼마 전 전공 교수님과 면담을 가졌다. 그 교수님은 내가 한 학기 내내 취재를 위해 자주 연락을 드렸던 분이다. 항상 말을 들던 입장에서 이번에는 필자의 이야기를 하려니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교수님도 기자로서의 필자를 더 자주 봐서인지 면담 전에 취재와 청탁 이야기로 시작하셨고, 자연스럽게 학보사 기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주로 학보사 생활을 통해 뭘 얻었고 느꼈냐는 내용이었다.

2013년 2학기를 떠올려보면 963호부터 이번 호까지의 모든 면이 눈앞을 스친다. 수습 딱지를 떼고 정기자로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는 뿌듯함은 잠깐이고 다 쓰면 지면이 모자랄 만큼 많은 아쉬움만 남는다. 취재처에 한 번이라도 더 전화를 걸어볼걸 후회가 되기도 하고, 인터뷰와 기고에 응해줬던 많은 분들에게 내가 혹시나 실수를 해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된다. 한 학기를 거치면서 더 좋은 기사를 쓰게 되긴 했는지 의심이 들 때도 많다.

하지만 한 학기 동안 얻은 것도 정말 많다. 취재를 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다. 학생이기에 학생 입장에 초점이 맞춰졌던 사안을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세상을 보는 시야가 조금 더 넓어졌고, 폭넓은 시각을 위해 공부해야겠다는 나름대로의 목적도 생겼다. 기자의 업무인 취재와 기사작성, 학생으로서의 본분인 공부를 조금이라도 잘 병행하기 위해 일정과 계획을 기록하며 시간 관리도 시작했다. 그 외에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끄떡하지 않고 웃어넘길 수 있는 무딘 신경줄, 마감 날 밤을 샌 후 씻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뻘뻘한, 학점에 연연하지 않는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우울함과 고민들이다.

이번 신문이 발간되기까지 끊임없이 마음을 졸였다.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정해진 발행일을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도 독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 났기 때문이다. 바쁜 시간을 쪼개 기고를 해주셨던 분들은 물론, 시의성을 잃게 될 기사를 떠올리면 취재에 흔쾌히 응해줬던 취재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동안 기자의 역할부터 내가 가져야할 언론관까지 기자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하나 되짚어보기도 했다.

위에 쓴 모든 내용을 다 언급하지 않아서인지, 면담이 끝나갈 때쯤 교수님께서 “잘 살고 있네, 걱정 없네”라며 크게 웃으셨다. 교수님께 칭찬 아닌 칭찬을 받은 것 같아 처음에는 마냥 기분이 좋았지만 교수회관 앞을 걸어 나오면서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학생으로서, 기자로서 잘 하고 있는 걸까 다시한 번 고민하게 됐다. 발행이라는 독자와의 약속을 어겨 느낀 막막함과 죄송함도 내가 얻은 것 중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직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기자로서의 내 가치관은 언제쯤 뚜렷해지는 것일까. 이런 내가 뒷담 하는 기사를 써도 되는 것일까. 요즘 학보사 기자인 내가 느낀 점은 이런 것이다.

캠퍼스의 특성을 알면 대학생들은 즐거워진다

직원의 말풍선



박인택 글로벌배움터
행정지원처 시설관리팀 체육실담당

신입생들은 치열한 입시전쟁 후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을 입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을 꿈꾸며 대학생활에 대한 희망과 설렘, 열정을 안고서 시작하게 된다. 친구들과 캠퍼스를 거닐며 구석구석을 돌아다녀보고 싶고 친구들과 운동도 즐기며 캠퍼스의 낭만을 마음껏 즐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업이 입학 초부터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기초를 준비하는 단계로, 성인으로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다. 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게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대학시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을 쌓고 교양을 넓히며, 좋은 추억과 친구를 만들고 선후배간의 우정을 만드는 등 새로운 만남도 가진다.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는 건강과 체력을 단련해 이러한 나만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

새로 지어진 기숙사 건물 뒤쪽 구기숙사 1층에 있는 체육실이다.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본래 운동장 위쪽에 위치해 있던 체육실은 운동장 자리에 신본관이 건설되면서 기숙사 뒤의 허름한 건물로 옮겨왔다. 체육실은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의 각 단과대가 봄과 가을에 과의 단합을 위해 진행하는 체전 및 학생들의 개인적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곳이다.

그 안에는 탁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 기자재들이 모두 준비돼 있다. 또한 체육기자재를 대여하고 싶을 때, 언제 찾아와도 웃으며 반겨주는 곳이다. 이곳의 특성상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는 있지만 아직 체육실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체육실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우리학교 학생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운동장 대여도 가능하며 축구공, 농구공, 야구용품 등 다양한 체육기자재들이 준비돼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학생증이 없다면 대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체육실의 기자재를 대여해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도 있다. 기자재를 대여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학생증을 찾아갈수도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서 제·증명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증명서 발급중지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가 대여한 기자재는 반드시 책임지고 반납해야 한다.

체육실에서 친구들과 내기 탁구도 한판 쳐보고, 배드민턴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과제나 시험으로 받은 스트레스 등 학업에 지친 몸과 마음이 상쾌해질 것이다. 체육실에선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책상에 앉아서 배우는 지식과는 다른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육실을 활용해 즐겁고 보람된 대학생활을 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외대학보도 방학을 맞이해
잠시 재충전의 시간에 들어갑니다.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애정 어린 질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다음 학기 새로운 구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마무리하고 알찬 방학 보내시길!

잠시 충전하겠습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 일시정지(사진) / 비둘기 칠판(3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 · 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지난호를 말하다 | 김종우(동양어 · 태국어 08)

보다 학생들과 소통하는 학보가 돼야

지난 호에는 최근 학교의 가장 큰 관심사인 차기 총장 후보에 대한 기사가 가장 비중 있게 실렸다. 앞으로 우리학교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고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질문을 선정해 각 총장 후보들에게 질문하고 상세한 대답을 받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난 호의 시도는 바람직했고,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차기 총장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생들이 차기 총장님에게 바라는 점 등을 좀 더 인터뷰해 함께 게재했으면 좀 더 의미있는 특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았다.

지난 호는 차기 총장 후보에 대한 기사에 힘을 줘 다른 기사들의 분량이 평소에 비해 굉장히 적은 편이었지만 의미있는 기사들을 찾을 수 있었다. 5면의 태국 정치 현황에 대한 기고는 현재 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탁신에 대한 문제를 소개해주는 글이었다. 사실, 이 ‘정치인 사면법안’ 문제는 전문가들이 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할 만큼 현지에서는 대단히 이슈가 되는 문제인

데 국내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는 문제였다. 학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알린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12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터뷰를 크게 다룬 것도 학생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기획이라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에 한 번쯤 기회를 마련해 이러한 주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인터뷰 때 나왔던 질문들 모두가 대개의 학생들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법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보다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내용이 실렸으면 한다. 예를 들어 3면에 실려있는 한국대학생연합 탈퇴에 관련된 기사는 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학보는 신문매체지만 주 독자가 우리학교 학생으로 좁혀져 있는 만큼 일방적인 기사가 아닌 해당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이를 다른 독자들과 공감하는 기회를 주는 상호 소통의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학보가 됐으면 한다.

외대학보

www.oedae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신민지 | 부장 이은결
정기자 임수진 최소영 하규범 이상일(객원)
조교 정다빈 지윤주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국·부장 고정칼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까?

▲지난 5일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서거했다. 그의 95년 생애는 전 인류의 자유와 평등의 역사 그 자체였다. 남아공 흑인들을 차별 정책에서 해방시켰고,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과거사를 청산하고 흑백을 한데 모았다. 그는 27년의 수감생활 속에서도, 5년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정계에서 물러난 후에도 끊임없이 모두가 조화롭고 민주적으로 살아가야한다는 이상을 품고 달려온 화해의 지도자였다.

▲만델라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이번 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국민통합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계층 갈등을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았다. 계층 갈등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념 갈등과 다문화 갈등을 심한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 해보다 10%가량 증가한 72.7%, 47.8%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는 것만 같다.

▲새 정부 들어 우리사회에 초유의 사건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기는 하다. 헌정 사상 처음 내란 음모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명이 구속되는가하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기도 했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의혹 등도 불거지며 전국 각계각층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의 정국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내외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문득 혼란과 분열을 일으키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분열된 정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아야만 할까?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위헌결정을 내리며 “통일된 국론의 존재는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사회에서 주로 상정하는

것”이라며 “국론 통일과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한 수단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선고했다. 타계한 만델라도 1994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무지개 나라(Rainbow Nation)를 건설해야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지금 우리사회에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만델라가 화합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끝이 없다. 국민들은 더 이상의 갈등과 불통을 바라지 않는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는 소설의 한 구절이 생각난다. 이렇게 국민들이 좌절한 시기,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정부는 현재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선화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할 것이다. 다음 해 우리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함께 ‘내일의 태양’이 뜰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은결 부장

만 평



비둘기 칠판

비둘기칩판 보내는 곳
87curious@hufs.ac.kr

‘졸려’의 수빈이에게

수빈아 안녕? 이렇게 너한테 편지 쓰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졸려’와 ‘배고파’를 달고 사는 너랑 투닥대며 지내다보니 한해가 마무리되네. 교양이었나, 동아리였나? 3월에 만난 그날부터 빛의 속도로 친해진 우리 사이. 2학기도 화요일에 교양 듣고 점심 먹고, 너와 화요일을 보내는 게 이제야 당연하고 편해. 서로 너무 다른 성격이지만 정말 잘 맞아서 신기. 아, 교양마다 졸린 얼굴로 완벽히 필기하는 너가 가끔 갑탄스럽다는 거 알아? 일어나라고 하는 건 난데 왜 너의 필기를 베끼게 될까. 할 일 하고 놀 땐 노는 날 보면 참 멋있어 보여. A.L.A동아리에서도 존댓말로 이름과 과를 물어보던 우리가 이제 누구보다 자주 같이 등장하는 사이가 됐네. 칠판에서 행복한 얼굴로 누워 있는 네가 처음엔 신기하게 보였는데 왜 나도 같이 졸리고 눕게 될까ㅠㅠ 영어 공포증 이겨내려 동아리 들었다는 너 얘기가 공감되지만 왜 이리 웃겼는지. 가끔 널 놀리지만 너 진짜 영어 잘하니까 걱정 안했으면 좋겠다. 기쁠 땐 같이 웃고 힘들어할 땐 위로해주고 짜증나는 일은 서로 열심히 말해가며 들어주고. 1학년을 돌아보면 결에서 항상 힘이 됐던 건 너인거 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고 지금처럼 잘 지내자. 힘을 때마다 먼저 연락해주고 위로해주서 고맙고! 우리 ‘화요팸’이란 이름으로의 3명 앞으로도 지겨나갈 수 있기를. 슈크란?
유진이가.

유진이에게

안녕, 유진아~ 나 수빈이야! 편지를 오랜만에 써봐서 그런지 어색하네... 언젠가 너에게 장문의 편지를 쓸 생각이었는데 이런 기회가 오다니ㅋㅋ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은 우리 유진이! 너한테 더 잘 대해 줘야 하는데 성격상 그러지 못한 내가 정말 후회스럽다... 사실 내가 타인과 처음 만날 때 조심해서 말도 잘 못 붙이고 요령 있게 대화를 이어가지 못해... 하지만 네가 말도 걸어주고 친하게 대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친근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대학 들어와서 친한 친구 사귀기가 힘들다고 느꼈는데 네가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처음에는 정말 영어공부하려고 들어온 알라였지만 여기서 널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 네 덕분에 알라 동기들 선배들과도 가까워지고 아랍어과 사람들도 많이 알아가구요ㅋㅋ 너랑 만날 때마다 너처럼 사람들과 자연스레 가까워지고 말쑥씨도 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ㅎㅎ 장난이나 농담도 받아주고 가끔은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번에 같이 일본여행 가주고! 정말 고마워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고맙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나중에 정말 크게 한턱 쏘게!!(일본 가서?ㅋㅋ) 우리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잘 부탁해!

—수빈—



외국어 교육 사업의 부흥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하길

행정학과 김인철 교수가 우리 학교 제10대 총장으로 확정되었다. 교내에서는 기획조정처장,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대외부총장 등을 역임하고, 대외적으로는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정책학회회장 등을 지냈으며, 뛰어난 행정 능력에 더해 학교의 여러 구성원과 소통하는 능력까지 갖춘 분이다 보니 새 총장께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총장 당선인이 제시하는 비전은 ‘또 다른 외대’이다. 서울캠퍼스 주변 민간 건물 구입을 통한 실질적 캠퍼스 확대, 도서관 증축, 글로벌캠퍼스의 노후 건물 리모델링, 도서관 신축, 제3기숙사 건립, 20% 재학생에게 등록금의 20% 장학금을 지급하는 2020 장학금 수혜 원칙 시행, 외대 병원 배속을 통한 의과대학 설립 기반 마련 등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신나는 변화’가 ‘또 다른 외대’에 담겨 있다.

문제는 예산 확보이다. ‘또 다른 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매년 수 백 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까닭에 총장 당선인은 현 2400억의 학교 예산을 재임 기간 중 3450억까지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필요한 추가 예산은 학교 기관 수익 사업, 정부·공기업·국책기관 용역수주사업, 기업과의 사업협력, 기부금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흔히 예산 확보 방안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기부금 유치이다. 하지만, 우리는 기부금 유치에 한계가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뜻있는 인사들의 기부금으로 학교 운영에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할 수가 있겠지만, 당선인이 제시하는 ‘또 다른 외대’를 실현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돈은 남에게 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벌어야 한다. 큰 돈을 스스로 벌겠다는 목표가 99%의 실패 확률을 안고 있다면, 큰 돈을 남에게 받아 내겠다는 목표는 99.9%의 실패 확률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큰 돈을 우리 힘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1%에 불과하다면, 큰 돈을 남에게 받아낼 가능성은 0.1%이다. 남에게 큰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우리의 노력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이 10배 쉽다.

이 점에서 학교 기관 수익 사업 매출을 300억 이상 증대시키겠다는 총장 당선인의 약속이 반갑다. 하지만, 어문·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외대의 고유가치 강화와 수익 사업 매출 증대 등을 연결시켜 볼 때, 외대는 수입 사업 매출을 수 백 억 규모가 아니라 수 천 억대로 증대시킬 역량을 가지고 있다. 60년 전통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라는 반복되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것이 외대만의 외국어 교수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강남 학원가에서 TOEIC 전문 강사를 초빙한 뒤, 광고 포스터에는 ‘60년 전통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라고 인쇄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조금 더 멀리, 그리고 크게 봐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외국어 학습자와 컴퓨터의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지금은 30여 개 외국어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전 세계 외국어 교육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로제타스톤’처럼 우리 학교도 ‘60년 전통의 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상징할만한 특화된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외대 브랜드의 외국어 교수법’으로 45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로제타스톤을 능가하는 경제적 성공을 거둬야 한다. 우리가 직접 천 명을 가르친다면, 천 명의 시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외대 브랜드의 교육 프로그램’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보급한다면, 우리는 50억 지구촌을 시장으로 갖게 된다. 멀리, 그리고 크게 보자! 외대가 꿈꾸는 수익 사업의 목표는 수 백 억 규모가 아니라 수 천 억, 심지어 수 조 원이어야 한다.

구성원들의 바람이 바람처럼 스쳐지나가지 않기를

학내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제 10대 총장이 새로 선임됐다. 이번 새 총장에 대한 지지는 그 간 유례없을 정도다. 교수협의회 주관 총장후보자 투표에서는 2차 투표에서 처음으로 결선투표 없이 2차 투표에서 끝마치기도 했다. 선거 기간 중 치러진 교수협의회 주관 총장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새 총장은 “내결은 공약의 80% 가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단언하며 공약 실천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며 두터운 신뢰를 얻기도 했다.

이번 본지에 실린 다양한 구성원의 축하만 보더라도 새 총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가 바라는 새 총장의 모습은 소외 없이 두루 살피며 소통하는 총장,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총장이다. 축하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학내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섭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기르며 소외되는 구성원 없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지난날의 반작용일 것이다.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서로를 ‘반대편’으로 여기며 그 과정에서 자연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사라졌다. 그에 따르는 결과는 우리학교의 위상 하락일 뿐이었다. 게다가 이것은 크게 대학평가에서부터 내부적으로 학내언론, 학생자치활동 등에게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새 총장은 이를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른 구성원들의 바람처럼 본지에서도 새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이제야 비로소 ‘진실보도’를, ‘자유언론, 정론직필’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진실보도’와 ‘자유언론, 정론직필’을 위한 것은 학교 측의 변화만은 아니다. 분명 그를 위한 본지의 노력 또한 수반돼야한다. 하지만 그 보다 앞서 개선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 시대를 열어갈 총장이라면 부디 인지했으리라 믿는다. 여느 학내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본지에서도 앞으로 새 총장이 이끌어갈 변화와 개혁에 신뢰와 응원을 보내며, 함께 만들어갈 ‘변화의 외대’에 미약하나 도움을 보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 점수가 낮다고, 학교가 안 좋다고 열등감을 갖지 말라”

취준생들의 영원한 길잡이 조민혁을 만나다

코앞으로 다가온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4학년, 벌써 몇 차례나 '공탈'당한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봤을 책, '기적의 자소서' 그 책의 작가 조민혁 컨설턴트는 우리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취업 컨설턴트다. 취업을 주제로 하는 TV방송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수많은 대학 취업 특강 무대에 서기도 했다. 본지는 그를 직접 만나보고 그가 말하는 취업 성공 노하우는 무엇인지 들어본다.

Q. 구직자가 선호하는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에 입사하셨지만 취업 컨설턴트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회사생활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아무리 잘 해도 상사에게 인정만 받을 뿐, 그것으로 끝입니다. 제 성향과는 맞지 않았죠. 하지만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제 강의를 듣고 성공했다는 학생의 연락을 받으면 제가 하는 일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는 느낄 수 없는 성취감을 느끼죠. 또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일에 더 가깝기도 합니다.

Q. 선배님께서 인사 채용팀에 계셨는데 그때 경험으로 비춰 면접관의 입장에서 꼭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원자는 누구인가요?

겸손하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면접장에서 옆 사람들이 결국 모두 경쟁자기 때문에 겸손해지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면접관 4명에 구직자 5명 등의 '다대다' 면접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앞서 대답한 사람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청산유수로 말하면 다음 차례의 본인은 부담감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와 비교해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면접관과 얘기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Q. 선배님의 대표 저서 '기적의 자소서'가 다른 취업 컨설팅 책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접근 방향이 구체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서적을 보면 '두괄식으로 써라', '스토리텔링을 해라' 정도의 정의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개념들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 입사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가 소개됐습니다. 자소서 쓰는 전체적인 부분인 총론과 세부적인 각론 부분이 명확하게 파트별로 구성돼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자소서를 쓰기 편하도록 말이에요. 이처럼 '기적의 자소서'는 취준생들에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Q. 다년간의 취업 컨설팅으로 수많은 취준생을 만나보셨을 텐데 그들이 주로 질문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회사가 나에게 맞을지?”, “저는 영어 점수도 안 되고 지방대 출신인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마치 고등학생들이 선생님과 대입 상담하는 것과 같아요. “선생님, 저 언어영역 몇 점, 수리영역은 몇 점인데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이 접근합니다. 다른 게 있다면 수능 점수와 대입은 철저히 정비례하다가 바라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겠다고 확신합니다. 그에 반해 취업 면접은 바로 눈에 보이는 수치가 다가 아니에요.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은 그들이 거기에 입사할지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해서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Q. 선배님의 취업 특강이나 책을 통해 가장 성공한 학생의 사례는



취업컨설턴트 조민혁(법·법 97)

누구인가요? 혹은 가장 인상 깊었던 학생이 있다면요?

한 가지를 꼽자면 결혼을 이미 한 남학생이 생각납니다. 그 학생은 경기대 영문과출신이었어요. 미얀마에 있는 회사를 다니다 해고당했죠. 가족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250여개의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합격했어요. 여학생수 800대가 채 안 됐던 그 학생은 3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만약 스펙의 문제였다면 그 회사에 떨어졌겠죠. 그럼에도 회사가 그 학생을 뽑은 이유는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마음가짐'의 부분이었습니다. 절실했던 마음이었죠.

이렇듯 저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스펙 기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합격한 수강생이 인상 깊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의 경우 서류심사가 없습니다. 삼성 채용 시험인 SSAT을 통과하면 바로 면접 보고 합격자를 선별합니다. 그다지 인지도 없는 대학을 나온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Q. 취준생들은 토익점수, 학점 등 스펙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선배님은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자소서를 쓸 때나 면접을 볼 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본인의 솔직한 부분을 강조하되 면접관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취준생이 면접에서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 구구절절한 국토대장정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다지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면접자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겠죠. 그럴 때는 5000km에 이르는 국토대장정의 과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토대장정을 끝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지닌 직무에는 어떻게 적합한지 이 부분을 설명해야 설득력이 있겠죠.

Q. 면접 시 복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스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개중에 면접 하루 전에 양복을 급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양복을 입고 아무 넥타이를 매고 흰 양말이나 신어요. 누가 봐도 호감이 가지 않죠. 그럴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가 있을 때에는 본인에게 맞는 양복을 찾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복장은 의외로 면접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Q. 앞으로의 우리나라 기업 채용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면접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제가 채용팀에 근무했을 때가 2006년도입니다. 불과 7, 8년 전인데 서류전형, 즉 학점이나 영어 점수 등 숫자로 나타나는 수치가 대부분의 합격기준을 차지했어요. 명문대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력서 위주가 아닌 면접으로만 구직자를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스펙에만 목매는 취준생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Q. 취업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요즘 소위 '취업대란'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고 좌절할 시간에 한 마디라도 경험자의 말을 찾아 듣고 노력해야 합니다. 즉 고민보다는 실천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구직자가 회사채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구직자는 '자기 위안'을 위해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본인과 비슷한 경험 글들을 찾아 읽겠죠. 하지만 차라리 그 시간에 오프라인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활동을 통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며 온라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조언이나 구직 사례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지막으로 취업을 앞둔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전해주세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외대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코트라(KOTRA)에 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전현무 씨는 앵커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서 남들처럼 아나운서의 길을 걸었죠. 그러나 전현무 씨는 예능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 더 성공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고 채용팀에 취직했으나 저는 과감히 퇴사하고 취업 컨설턴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더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또한 예를 들어 빅뱅의 래퍼 탑이 노래를 잘하는 태양이나 대성을 보며 '나는 랩밖에 못하네'라며 노래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수 손흥민 축구 선수가 골대에서 공 막는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출신 학교가, 토익 점수가 안 좋다는 생각으로 남들에게 열등감을 느끼지 마세요. 분명 본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못하니까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은 절대 꺾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입시 결과가 낮은 같은 학교 태국어과 학생이 영어과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껴야 하나요? 아닙니다. 희소성을 가졌다는 점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마음가짐이 실제 면접 자리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